

전주 시민의 일상사와 자기의식*

『혼불』과 공유지(Commons)의 사례

The Daily History and Self-consciousness of Jeonju Citizens:
Two Examples of Reading Groups

오항녕(Oh, Hangnyeong)**

1. 머리말
2. 일상사의 방법과 관점
3. 『혼불』: 지역 의식의 흔들림
 - 1) 코비드19와 『혼불』
 - 2) 흔들리는 『혼불』
4. '공유지' 읽기의 은닉 대본
 - 1) 공유지를 만나는 길
 - 2) 마녀에서 도둑까지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22년도 전주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따라 이루어졌음.

** 전주대학교 대학원(사학과) 교수(hallimoh@hanmail.net).

■ 투고일: 2024년 06월 12일 ■ 최초심사일: 2024년 06월 17일 ■ 게재확정일: 2024년 07월 22일.

■ 기록학연구 81, 5-44, 2024, <https://doi.org/10.20923/kjas.2024.81.005>



〈초록〉

본고는 전주 시민들의 활동에 대한 체험 및 관찰 보고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당대사이자 ‘작은 사람들(kleine Leute)’의 일상사(Alltagsgeschichte)를 보여주는 일기, 단체카톡방, 메모, 인터뷰 등 텍스트 또는 본디디지털(born-digital)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들 시민 모임은 독서모임이자, 등산, 영화 같은 취미도 함께 즐기고 있다. 회원은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다. 한 팀은 최명희(崔明姬)의 《혼불》을 약 1년 반 동안 읽으면서 답사를 겸하였고, 또 한 팀은 ‘공유지(communs)’를 주제로 몇 권의 책을 읽으며 답사, 전시나 영화를 함께 보고 누렸다.

본문은 모두 세 부분 구성하였다. 첫째, 지역민의 일상사를 살필 수 있는 방법과 관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일상사의 전망과 이론의 가능성을 포착한 포이케르트(Detlev Peukert)와 뤼트케(Alf Lüdtkke), 하부정치에 통찰력을 제공한 스콧(James C. Scot)의 견해를 검토하였다. 전주 시민들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일상사 연구의 관점과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를 토대로, 둘째, 《혼불》 모임의 경험을 살폈다. 코비드(Covid)19와 대결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혼불》 읽기는 강렬한 지역성과 연관되어 시작됐다. ‘지역이 낳은 위대한 작가’에 대한 비판이 불편했던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회원들의 비판의식은 《혼불》 3권 이후 드러나고 6권 이후 두드러졌다. 특정한 형태의 공감(상심, Betroffenheit)에 고착되기보다 역동성을 택하는 시민들의 자의의식(고집, 아집, Eigensinn)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였다. 지역사의 서술과 연구에서 맞닥뜨릴 난점이자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셋째, 공유지를 주제로 모인 시민들을 관찰하였다. 이 모임은 전주 지역 시민들의 하부정치(infra-politics) 역량의 실제와 축적 과정을 보여주었다. 공유지 읽기는 《혼불》에 비해 지역 시민으로서의 ‘마음 고생’을 겪지 않았다. 그보다 사유 재산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면서도, 모임이 진행됨에 따라 공유지에 대한 인식이 정교해지고 주체적으로 이슈와 논의를 서로 공유하였고, 그 실천과 문제의식을 통해 풍부한 은닉 대본(hidden transcript)을 축적해갔다.

현대의 일상은 자본주의 시대와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 더 근본적으로 인간이 즐기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이다. 모든 역사는 지금 여기 있는 내 몸을 거친다. 이것이 일상사의 보편성이다.

일상을 살면서 동시에 비판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일상사를 만드는 시민의 역량에 달려 있다.

주제어: 시민, 일상사, 지역, 작은 사람들, 혼불, 공유지, 자기의식, 공감, 하부정치, 은닉대본

〈Abstract〉

This paper is an experience and observation report on the activities of Jeonju citizens, who are 'kleine leutes'. Text or Born-digital materials such as diaries, group chat rooms, memos, and interviews showing citizens' contemporary and daily history (Alltags-geschichte) were used for this purpose.

These civic groups are reading groups we can find easily and they also enjoy walking, hiking, and movies, and so to speak ordinary local people are their members. One team read Choi Myung-hee's "Honbul" for about a year and a half, while another team read several books under the theme of "commons," and enjoyed exploring, exhibiting, or watching movies together.

The main text is composed of three parts. First, I looked at the methods and perspectives to examine the daily life of local people. To this end, the views of Detlev Peukert and Alf Lüdtke, who captured the prospects and the possibilities of theories of daily history, and James C. Scott, who provided insight into infra-politics, were reviewed. This work was to find the perspective and method of daily history research that could observe the activities of Jeonju citizens.

Second, we looked at the experience of the "Honbool" meeting. The reading of "Honbool" which took place during the period of confrontation with Covid19 began in connection with its intense locality. As the criticism of "a great writer born in our local land" relieved the uncomfortable feelings, the members' critical mind was

revealed after Volume3 of “Honbool” and stood out after Volume6. It seemed to s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lf-consciousness (Eigensinn) of citizens who choose dynamics rather than being stuck to a specific form of empathy (Betroffenheit). I think it showed the difficulty and hope to face in the description and research of local history at the same time.

Third, I observed citizens who gathered on the subject of public land. This meeting showed the actuality and accumulation process of the infra-political capabilities of citizens in Jeonju. Reading-commons did not suffer from ‘heart trouble’ as a local citizen compared to “Honbool”. Rather, the difficulty of related books was an obstacle, and the difficulty was easily resolved. As the meeting progressed, awareness of the commons became more sophisticated and issues and discussions were independently shared with each other, and a wealth of hidden transcripts were accumulated through its practice and problem consciousness.

It is difficult to think about modern daily life apart from the capitalist era. More fundamentally, it is here and now in everyday life that humans enjoy or suffer from. All history passes through my body here and now. This is the universality of daily history. It depends on the ability of citizens to create daily history to experience and at the same time maintain the distance of criticism.

Keywords: citizen, Alltagsgeschichte, local, kleine Leute, *Honbool*, commons, Eigensinn, Betroffenheit, infra-politics, hidden transcript

1. 머리말

어떤 역사학자는 역사학이 당대사를 포기했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또 다

른 역사가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역사학 탐구의 대상이 된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역사-인간은 지금도 역사를 만들고 전하고 이야기한다(오항녕, 2024-2). 실제로 기록학으로 되살아난 오랜 역사학이 시민권을 얻어 현금 대학의 역사학이 놓치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당대사를 되살리고 있지 않은가(오항녕, 2024-3).

또 누구는 역사학이 너무 긴 시간의 변화를 다룬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누구는 미시적으로 관찰된 인간의 활동이야말로 역사 탐구의 출발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조 굴디·데이비드 아미티지, 2014).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주장은 역사 탐구의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다는 것을 보여줄 뿐,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고는 얼마 지나지 않은, 또 진행 중인 작은 활동에 대한 관찰 보고이다. 말하자면 당대사의 기록이다. 필자는 전라도 전주 지역의 시민 모임의 활동을 소개하고, 그 활동을 일상사의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시민 모임은 흔한 독서모임이자, 걷기, 등산, 영화 같은 것도 함께 즐기고 있으며,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필자는 전주에서 20년 가까이 독서 및 문화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시기에 따라 성원은 바뀌고 독서 등 활동의 주제도 바뀌었다. 이들은 친구, 선후배, 옆집 사람들로 알음알음으로 모인 이들이었다.

본고에 등장하는 모임은 그 경험 중 두 시기를 함께했던 팀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 팀은 최명희(崔明姬)의 『혼불』을 약 1년 반 동안 읽으면서 답사를 겸하였고, 또 한 팀은 공유지(communs)를 주제로 몇 권의 책을 읽으며 답사, 등산, 영화관람을 함께 하였다. 이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는 보통 시민들이었고 연령층도 다양하였지만, 두 팀 사이의 특별한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시민이 논의의 주제로 삼았던 소설 『혼불』 및 공유지를 주제로 한 저서에 대한 태도와 견해는 차이가 있었다. 공유지에 대한 논의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당혹감과 불일치가 『혼불』에서는 자주 포착되었고, 공유지에 대한 논의에서는 『혼불』에서보다 강한 정치의식을

표출하였다.

이처럼 텍스트에 따른 두 모임의 차이점에 대해 본고는 일상사와 지역사라는 범주를 통해서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상사라는 역사학의 연구 대상이 학계에 소개된 뒤, 일상사는 정치사나 경제사에서 다루지 않던 의식주나 놀이 같은 생활의 기본 활동이나 조건, 환경을 다룬다는 소박한 정의에서 시작하여, ‘아래로부터의 역사’가 국가, 관료집단, 경제구조보다 사회를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관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안병직, 2012).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모호할 수 있고, 모호한 만큼 개념의 유용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사는 그동안 향토사, 지방사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크게 개념적인 차이는 없다. 지방사, 지역사라는 용어는 중앙과 대비되는 지역, 즉 서울에 대비되는 지방의 역사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이훈상, 2009; 홍성덕, 2025; 윤세병, 2020; 오항녕, 2023-2). 좀 더 특수하게는 한 촌락이나 몇몇 촌락, 작은 도시나 읍(邑)의 역사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보통 사람들의 삶의 마당이 태어난 지방을 벗어나지 않았던 전통시대의 역사범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역사 역시 대략 지리적으로 그 지방에서 이루어진 역사에 대한 연구이고, 지역 사회 시민들의 문화사, 사회사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본고는 전주라는 지역의 시민들이 펼친 일상사의 한 측면을 기록하고, 그 일상사에 담긴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이론과 사례, 체험과 관찰을 결합하는 연구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이를 위해 개인의 일기, 모임의 구술(口述)과 메모, 녹취 등의 사료(史料)를 포함하여(이용기, 2009; 윤택림, 2010; 허영란, 2013; 김귀옥, 2014) 본디지털(born digital)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본문은 2~4장 세 부분 구성하였다. 2장에서는 지역민의 일상사를 살필 수 있는 방법과 관점을 확보하는 이론적 과정으로, 일상사의 가능성을 포착

한 데틀레프 포이케르트(Detlev Peukert, 1950~1989)와 알프 뤼트케(Alf Lüdtke, 1943~2019), 하부정치에 통찰력을 제공한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 1936-)의 관점을 끌어올 생각이다. 물론 우리의 목적은 이들의 역사학 성과를 요약하거나 비평하는 게 아니다. 전주 시민들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일상사 연구의 관점과 방법이라는 기능의 범위에서 유용성을 찾아보는 것이다.

3장에서는 『혼불』 읽기 모임의 진행 과정과 활동, 그리고 참여한 시민들의 논의에서 드러난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험은 『혼불』에 담긴 강렬한 지역성과 연관되어 있다. 동시에 장차 지역사의 서술과 연구에서 맞닥뜨릴 난점을 미리 보여주기도 한다. 바로 지역의 대표 작가에 대한 이해의 차이인 것이다. 이 불일치는 면면히 작용하는 시민들의 자기의식, 즉 포이케르트와 뤼트케가 말한 공감과 자기의식(고집)의 역동성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 역동성의 다른 양태를 4장에서 다룬 공유지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유지를 주제로 전개된 토론은 전주 지역 시민들의 하부정치 역량을 읽어낼 수 있는 좋은 자료였다. 이를 방해하는 장애는 주로 저서의 난해함 때문이었지만, 그 난해함은 곧잘 해소되었다. 그리고 그 장애가 제거된 뒤에는 자신들의 정치의식을 새롭게 해석하는 생동감을 표출했다.

본고의 관찰을 통해, 일상사의 주체와 실천, 일상사가 보여주는 역사의 층위의 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시민의 일상과 정치의식의 실제, 그리고 그 변주의 진폭을 관찰하면서 시민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 다가섰으면 한다. “일상성의 이론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선행조건들이 있다. 우선 일상 속에서 살며 일상을 체험할 것, 둘째로 그것을 수락하지 말고 비판적 거리를 유지할 것 등이다. 이 이중의 조건이 없으면 일상의 이해는 불가능하고 오해만 야기할 뿐”이라는 또 다른 일상의 관찰자, 르페브르의 말을 기억하면서(앙리 르페브르, 1968).

2. 일상사의 방법과 관점

한국 역사학계에서 일상사(日常史, Alltagsgeschichte)라는 용어 또는 연구 분야가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천 년 전후의 시점으로 짐작된다. 서양사 전공 논문에서 언급되다가 독일에서 활동하던 역사학자들의 일상사 개념이 저서로 묶여 출간되면서가 아닌가 한다(알프 뤼트케, 2002). 일상사는 글자대로 보면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하루하루’를 역사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즉 일상적 삶과 문화에 주목하여 역사에서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현실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가 늘 소박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상에는 히틀러의 제3제국이 담길 수도 있는 것이다(데틀레프 포이케르트, 1982).

분명한 점은 일상사가 눈에 띄는 업적이나 범죄(반역) 및 그 당사자들, 위인(偉人)들, 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에 주목하지 않는다. “전해지는 대다수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고생해가면서, 또는 가끔씩 ‘과시적으로 소비’해가면서 일궈냈던 삶과 생존이다.”(알프 뤼트케, 2002) 이는 흔히 ‘작은 사람들(kleine Leute 서민, 보통사람들)’의 행동과 희노애락(喜怒哀樂)에 관심이 놓여 있다. 거대한 이념이나 구조보다 주거, 의복, 식사 등 일상적인 의식주를 묘사하며, 그들의 사랑과 증오, 기억, 두려움, 희망이 관심이 된다.

지금까지 다소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상사의 대상, 주제, 범위에 대해 살펴해보았다. 이제 데틀레프 포이케르트와 알프 뤼트케의 관점과 방법을 검토하여 본고의 주제에 응용할지 알아보려고 한다.

나치즘 연구에서 일상사에 주목한 포이케르트는 기존의 파시즘 이론과 전체주의 이론이 해석은 다르지만¹⁾ 분석의 대상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즉

1)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이 파시즘을 독점자본주의의 발달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대공황의 국가적 수습, 독일 제국주의의 세계 시장(=식민지) 진출, 노동계급에 대한 폭력적

지배체제, 지배집단, 억압 메커니즘을 분석하되, 당하는 사람들과 주민 대중의 경험은 도외시한다는 것이다. 그는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어 나치 체제를 ‘아래로부터’ 바라보면서, 제3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당한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치의 도전을 경험했는가, 그 경험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발전시켰고 어떤 행동방식이 가능했는지 어떤 방식이 채택되었는지 서술하였다.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은 연구자를 사회사, 경제사, 교육사 혹은 문화사 속으로 안내해주는데, 그는 일상사가 역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새로운 전망이라고 가닥을 탔다(포이케르트, 1982, pp.24~27).

게슈타포 보고서 등을 통해 나치즘 아래에서 ‘작은 사람들’의 일상을 검토한 그는 ‘모순된 분위기’를 읽어냈다. 예를 들어 1943년 전쟁의 공포 속에서 괴벨스의 “여러분은 총력전을 원합니까?”라는 질문에 광신적으로 “예”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광업 지대인 루르 지방에서는 “토미야 더 멀리 날아가련. 우리는 광부일 뿐이란다. 더 멀리 베를린으로 날아가련. 그곳에서는 모두가 ‘예’라도 대답했단다”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다(포이케르트, 1982, p.70). 토미는 영국 폭격기의 이름이다.

이렇게 포이케르트는 역사 이해를 위해서 사회와 정치구조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접근 방법과, 일상의 모순을 담고 있는 경험을 대상으로 개별화하는 접근 방법 모두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앞의 책, p.93). 나치의 전시 동원(戰時動員)에 대한 반감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아예 묻지도 않는다. 그들은 다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사올지 고민하는 힘든 일상에 열중할 뿐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반작용이 나치 체제를 안정시킨 결과를 가져왔다(앞의 책, p.114). 흔히 관찰되듯, 힘든 일상이 정치적

억압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의 경우처럼 전체주의를 군중의 폭력 현상, 즉 폭민(暴民)의 전면화로 보고 나치즘과 스탈린의 소련 사회를 사례로 꼽았다. 한나 아렌트, 박미애·이진우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1951)1, 한길사, 2006, 전체주의에 대한 서론 및 제4장 4.국민과 폭민, 제5장 3.폭민과 자본의 동맹.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상사에서는 몇%의 나치 지지자에 몇%의 비순응 인민과 몇%의 저항 인민이 대답했다는 식의 계산법도 배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상의 전망에서 바라보면, 개인의 삶에서 체제에 대한 거리와 수동적 함의와 참여의 요소가 깔끔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포이케르트스는 이 점이야말로 일상사의 접근이 거둘 수 있었던 핵심 성과라고 하였다. 나치에 대한 부정적 소문이나 불평불만의 만연이 인민 저항의 증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는 여론이 파편화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나치에 동의하지 않는 대중은 수동적인 불만족, 투덜거리는 체념, 체제와의 개별적 타협 속으로 침몰하였다고 할 수 있다(앞의 책, p.91).

포이케르트스는 ①나치 체제와 그에 투쟁했던 집단의 갈등, ②나치 체제의 지배적 파당들의 갈등, ③청소년 동원 등에서 나타나듯 나치 엘리트와 대중(지배받는 개별 인민집단)의 갈등이라는 세 차원으로 독일 제3제국의 갈등을 정리하였다. 이런 갈등의 차원에서 보면 시민 활동을 다루는 우리 주제와 거리가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는 일상사의 차원을 검토하여 나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회색 지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포이케르트 시각은 알프 뤼트케로 이어진다는 게 필자의 관찰이지만, 제임스 스콧이라면 달리 설명했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이는 스콧의 ‘은닉 대본’이 갖는 확장성과 관련이 있는데, 포이케르트와 스콧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는 뒤에 살펴보고, 먼저 포이케르트와 알프 뤼트케의 연결, 연관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뤼트케가 포이케르트와 마찬가지로 일상사를 하나의 ‘시각’으로 인식한 점이 있다(이유재, 2020). 이는 ‘사람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전유(die Aneignung, appropriation)하는 다양한 행위들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태도’이며, “매일 매일을 살면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의 다층적이고 다양한 형태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뤼트케는 ‘전망’을 넘어

서 일상사를 방법론이자 이론으로 체계화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뤼트케는 “일상사는 지방적 지역적 범위의 새로운 기억연구 형식들에 대한 공통분모이다 … ‘이름없는 사람들’, 특히 ‘현장에서’ 억압받고 격리됐던 사람들의 ‘자취’를 추적한다.”고 말하였다(뤼트케, 2002, p.60). 그래서 노동자들의 삶, 고통, 그리고 저항, 특히 독일 파시즘 시기의 유태인 수인(囚人)들, 외국인 노동자들, 집시들, 동성애자들의 죽음에 대한 연구 및 서술기획이 가능하게 되었다.

뤼트케는 연구 대상과 시각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론적 성찰과 방법적 정밀함’을 염두에 두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는 대학 외부의 연구, 예를 들어 그가 ‘역사작업장(Geschichtswerkstatt)’이라 부른 데서 더욱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고 보았다(앞의 책, p.63). 이는 “전시회에서 연구대상자들은 이따금 전문가와 공동기획자로 신분을 상승시키게 된다”든지, “우리는 ‘맨발로 갈 때(barfuß)’ 실재성이라는 대지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것은 제도화된 학자들이 흔히 잊어버리는 통찰이다.”라는 지점에서 확인된다. 이런 관점은 최근 소개되는 ‘공공역사’와도 상통하는 듯 보인다(마르틴 뤼케·이름가르트 천도르프, 2018). 그러나 뤼트케는 참여적 역사서술과 ‘의사소통과정’이라고 부른 역사서술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공공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 점에서 거리가 있다. 필자 역시 공공역사의 개념, 대상, 방법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따로 정리하여 발표하겠다.

뤼트케 역시 포이케르트와 마찬가지로, 특히 1990년 동독 지역의 할베(Halbe) 시의 전몰자 묘지를 답사한 경험에서,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즉 동독과 서독 모두에서, “‘평범한 독일인’의 주요 공통점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독일 파시즘을 가능케 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나치즘’으로 비화시킨 사람들이 결코 전멸 전쟁과 쇼아(Shoah) 희생자가 아닌 공범이었다는 사실은 주목받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알프 뤼트케, 2020, p.60). 공식 기억이나 추모행사가 역사 현

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의식이었다.

그는 ‘반복되는 것’이 지배하는 ‘일상적 활동들’에 중심을 두었다(알프 뤼트케, 2002, p.20). ‘반복’을 통해서 ‘일상의 사유와 행위가 실용적으로’ 된다. 물론 그는 일상사가 과거 상황을 낭만화한다는 비판도 의식하고 있었다(앞의 책, p.33). 하지만 그는 일상사가 낭만화보다 이국 풍경을 보는 ‘낮 설게 하기’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전통적 의미에서는 일상사는, 극히 소수의 사료만 남긴 사람들을 다루지만, 때로 가까운 과거에 대하여 ‘동시대 증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앞의 책, p.35). 필자는 이 지점 역시 일상사가 먼 과거에 몰두하는 작금의 역사학에 대한 반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일상사 분석과 해석의 체계적 탈중심화에 주목하였다. 개별 현상들의 분류와 체계화는 더 이상 중심에 놓이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방향 설정이 시급해지는 것이다. 이 새로운 방향에서 이론은 개념 뿐만 아니라 표상까지도 의미한다(앞의 책, pp.38~39).

역사 속의 일상에 대한 연구는 수많은 역사적 삶으로 통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 연구자와 독자, 관찰자들에게서 공감(共感, Betroffenheit)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앞의 책, p.53). 그런데 이 개념이 좀 모호하다.

포이케르트도 이 개념을 쓴 적이 있다(포이케르트, 1982, p.13). 나치즘 당시 사람들의 인지 및 행위 방식이 있고, 그들의 행동 결과와 그것을 파악한 연구자의 논의가 있을 때, 이를 분리하면 ‘역사가 자신의 상심(傷心, 공감, Betroffenheit)을 가로막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역자 김학이는 “나치즘이라는 과거를 바라보는 개인이 그 과거에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상심은 과거에 대한 망각과 미화를 막아주고, 그 과거의 피해자들과 화해하게 해주며, 그 과거의 가해자들을 용서하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앞의 책, p.14, 역주3). 여기서 개인은 역사가나 독자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베트로펜하이트(Betroffenheit)는 구조의 설명에서 접할 수 없는 정서적 교감이라는 점에서 일상사의 주요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장에서 뤼트케가 일상에서 중시하는 인간 행위 개념은 ‘아집(Eigen-sinn)’²⁾이다. 뤼트케는 ‘고집=아집’을 개인적 활동이지만, 계급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 ‘자기의식=아집’은 계몽주의 시대에는 ‘고집스럽고, 설득되지 않고, 어린이 같다’는 부정적인 의미였다가 반자본주의적 전복 태도를 보이는 저항적 성격을 띄었다고 한다(이유재, 2020, pp.16~17). 뤼트케는 헤겔의 아이겐진 개념에서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있다’는 표현을 중시하면서 ‘다층적이고 직접적이고 매개 불가능한 개별 행위자의 실천’을 아집이라고 정의했다. 이 아이겐진에 따른 행동은 논리정연하지 않고 모순적인 면도 있으면서 가볍고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실천으로, 굳이 형상화하자면 구불 구불한 나선형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아집’에 따른 행위에서 가해, 참여, 동의, 회피, 물러나기, 돌파하기, 연대, 거리두기, 저항, 복종 등의 행위 가능성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아이겐진 개념은 제임스 스콧이 ‘은닉 대본’으로 개념화했던 현상의 일부인 ‘폭발’의 원천으로 조우한다. 지주(地主)에게 눌러 지낸 사람이 ‘한방 먹이는 것’, 예를 들어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 혼자만이 본심을 말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르신 이름을 듣기만 해도 코 앞에서 확 켜지는 유향 성냥불보다 더 치가 떨린대요”라고 대드는 식이다(제임스 C. 스콧, 1992, p.39).

이제 본고의 소재를 분석할 시각과 방법의 세 번째 역사학자인 제임스

2) 이유재는 이를 ‘아집’으로 번역했다. 예를 들어 앞의 논문, 2020 및 『아집과 불은: 한독 일상사 워크숍』,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3. 또한 다른 곳에서는 ‘고집’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알프 뤼트케 교수와의 인터뷰』, 『일상사란 무엇인가』, 청년사, 2002, pp.464-465. 이유재는 필자에게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아집’이 일본의 ‘곤조(こんじょう, 根性)’와 가까운 듯하다고 덧붙였다. 2023년 1월 4일 대화. 필자도 아집의 어감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자기의식’으로 번역했는데 독일어의 ‘Selbst-bewußtsein (self-consciousness)’과 겹친다는 약점이 있다. 일단 자기의식과 아집, 곤조에서 느끼는 복합적 어감 정도로 생각하겠다.

스콧에 이르렀다. 뤼트케와 스콧을 연결시키는 것은 필자의 억측이 아니었다. 뤼트케는 자신의 일상사에 대한 논의가 스콧과 닿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까? 뤼트케는 스콧 개념의 유용성을 알고 있었다.

할베 시의 추모공원에서 뤼트케가 스콧의 ‘은닉대본(hidden transcripts)’이라는 개념을 채택했을 때는 그 의미가 명료하지 않았다. 뤼트케는 “추모 행사나 제의(祭儀)는 개개인이 이 행위를 나름대로 해석, 행동할 수 있고 ‘은닉대본’에 따라 그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말만 했기 때문이다(알프 뤼트케, 2020, p.62).

이후 2009년, 뤼트케는 자신의 논의가 스콧과 연결될 가능성을 조망하였다(앞의 책, pp.323~326). 그는 아예 “8. 문화적 지향방식: 제임스 스콧의 ‘대본’과 그 단층선”이라는 제목으로 장(章)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화적 지향양식’이라는 용어 이상으로 스콧의 ‘대본’ 개념을 발전시키거나 재해석하여 적용하지는 않았다. 필자로서는 ‘역사가 된 동독’의 연구에서 뤼트케가 관찰한 단층선을 해명하는 데 유효한 방법이자 관점으로 포착했겠구나 짐작할 뿐이다.

스콧의 은닉 대본 개념과 그 의미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스콧은 지배자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피지배자의 언설이 공개 대본이라면, 권력자의 시선을 피해 ‘막후’에서 생성되는 언설을 은닉 대본이라고 보았다. 학생, 회사원, 자식들이 교수, 상급자, 부모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는 점을 떠올리면 된다. 은닉 대본은 공개 대본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확인하거나 부정하고 굴절하는 막후의 언어, 몸짓, 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제임스 C. 스콧, 1992, 특히 pp.31~32). 이를 통해 피지배 집단들이 벌이는 정치적 행위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스콧은 은닉 대본의 이론화 이전에 오랜 현장 조사를 거친 자료를 축적하였다(James C. Scott, 1985).

스콧은 폭정이나 억압에 대해 민심이 조용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두 이론이 있다고 한다. ‘두꺼운 버전’과 ‘얇은 버전’이 그것이다(제임스 C. 스

콧, 1992, p.137). 앞의 것은 폭정의 논리를 내면화해서 기꺼이 동조하는 것으로 흔히 헤게모니론이라고 한다. 뒤의 것은 ‘어쩌겠나, 그래도 살아야지’ 하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순응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두껍고 얇다는 말은 뺏속까지 받아들인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말하는 것 같다. 얇든 두껍든, 이 설명 역시 상황을 더 분석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스콧이 보기에 죽창 드는 농민, 파업에 나서는 노동자, 촛불 드는 시민의 ‘폭발’을 설명하지 못한다.

두껍든 얇든, 스콧은 그리고 필자는 동조와 순응의 밖에 존재하는 무수한 정치공간에 주목한다. 모바일 소통방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버스 안에서, 점심 밥 먹으며, 퇴근 후 한 잔 하며 친구나 동료들과 나누는 작금 정치 행위에 대한 농담, 경멸, 불평, 불만, 불안, 비웃음……. 때론 맘 맞는 사람들 끼리라면 술김에 세상을 엮어버릴 듯이 호언을 해도 좋다. 푸념, 호언처럼 들리는 그 두런두런, 수군수군 속에 시민의 정치의식은 보존된다. 스콧은 여기서 형성되는 언설과 행동, 기호(記號)를 은닉 대본이라고 불렀다.

3. 『혼불』: 지역 의식의 흔들림

이제 포어케르트가 제시한 일상사에 대한 전망과 일상을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상심(傷心, 공감, Betroffenheit)을 매개로, 또 튀트케의 구불구불 돌아가는 층위의 일상 세계, 즉 이분법으로 환원되지 않는 삶의 무대에서 ‘작은 사람들’의 자기의식(고집, 아집, Eigensinn)을 확인하고자 한다. 코비드19 상황에서 이어진 전주 시민들의 『혼불』 읽기가 그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헤게모니에 포섭되지 않고 시민의 정치의식을 축적하는 스콧의 은닉 대본은, 마찬가지로 전주 시민들의 ‘공유지’ 읽기 모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코비드19와 『혼불』

최명희 작가의 『혼불』을 읽는 모임은 2021년 3월에 시작되었다. 모임 구성은 전주 효자동 알마마테르 카페에서 기존에 하던 ‘문향(文香)’의 멤버에 필자를 포함한 몇몇이 더해지는 방식이었다. 일부 회원은 이미 『혼불』을 읽은 적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필사(筆寫)를 하며 읽는 모임에 참여한 회원도 있었다. 필사는 거부할 수 없는 정서와 미학적(美學的)의 동감을 수반한다.

구성원은 15명이었는데, 설명을 위해 다음 명단을 제시한다. 참석자는 모임이 진행되는 중간에 출입이 있었다. 본고의 논의 성격상 굳이 실명을 제시할 이유도 없고, 직업이나 나이도 논의와 상관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구성원: 나○현(총무), 장○이, 김○○, 이○○, 장○근, 강○현(대표),
배○○, 정○○, 오○○, 강○근, 박○○, 양○○, 임○○, 송○
○, 최○○ 등 15명

『혼불』의 판본은 한길사(1996), 매안(2009)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각자 구하기 편한 것으로 읽자고 했다. 본고에서는 한길사본으로 전거를 제시하겠다. 분량은 1달에 1권씩 읽기로 했다. 총무를 맡은 나○현은 『혼불』에 나오는 가계(家系)와 인물 관계의 도표를 단톡방에 올려주고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이건 누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는 독서모임입니다.
4월에는 1권을 서너 분이 나누어 요약하고, 그 요약을 따라가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겠지요(혼불 단톡방, 2021년 3월 18일).

아주 간단한 메시지였다. 첫 모임은 4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복병이 있었다. 온 나라가 바야흐로 코로나 상황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미 4월 8일 학교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상태였기에 필자는 문자를 보냈다.

강 대표님, 판단을 해주셔야 할 듯합니다. 코로나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헌데 혼불 모임이 다음 주 28일 수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어떠신지요?(21.04.11)

코로나를 우습게 보고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회원도 있었으나, 워낙 심상치 않은 질병의 기세에 우리는 곧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5월도 건너뛰니, 6월 23일(수)에 첫 모임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날 내 일기장에는 “12명. 아주 부드럽게 시작. 물론 조금 자기 의견 강한 분도 있고.”라고 짙막한 소감이 적혀있었다. 이때는 몰랐지만 ‘조금 자기 의견이 강한 분’은 하나가 아니었고, 이 자기의식이 곧 살펴볼 인식의 균열을 가져왔다.

1권 모임 뒤에는 다음과 같은 회원들의 글이 올라왔다. 활발한 토론도 좋지만, 모임 전후로 각자 ‘씨앗문장’이나 코멘트를 공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런 방식은 긴 독후감보다 부담이 없어서 누구나 적을 수 있었다. 몇 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p.88. 사음(舍音)은, 한자로는 이렇게 써도 마름으로 읽습니다. 지주집에서 소작농 감독자입니다.

p.148. 한벽루가 나와서 반가웠습니다.[한벽루는 지금 전주의 한벽당(寒碧樓)이다.]

p.242. 이 시는 다시 번역해야할 듯합니다. 간결하긴 한데, 그림이 약하게 그려집니다. 우선 오자가 있어요. 雨는 兩이고, 단丹이 아니라 주舟(ship)입니다.

p.308. “그 햇빛은 초청처럼 무겁다”: 실감납니다. 요즘. 오늘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타는데, 딱 그 느낌.

p.242에 대해 첨언하자면, 『혼불』 1권에는 “일대창파우안추[一帶滄波兩岸秋], 풍취세우쇄귀우[風吹細雨洒歸舟]. 야래박근강변죽[夜來泊近江邊竹], 엽엽한성총시수[葉葉寒聲摠是愁]”를 “새파란 물결에 가을 어리고, 가랑비 휘몰려 널배 부린다. 밤이라 저 건너 강가 대나무, 잎마다 찬 소리 시름뿐이네.”로 해석했다. 회원 강○근은 “한 줄기 푸른 물결에 양쪽 강가 가을인데, 바람은 이슬비 날려 돌아오는 뱃전에 뿌리네. 밤에 와 배 대니 강변 대숲 가까이라, 잎마다 스산한 소리 모두 다 근심일세.”로 다시 번역했다. 이 외에 “혼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성’입니다”, “청암(靑巖) 부인의 멋지다” 등 다양한 소감이 올라왔다.

7월 두 번째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p.63. 염일일(念日日)은 염일(念日)이 맞습니다. 念은 20일입니다”라고 꾸준히 교정 보는 회원도 있었다. 8월에 또 비대면으로 할 상황이 되자, 한 달 기다렸다가 코로나 추이를 보고 대면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 시기 혼불 모임도 코로나와 전쟁을 치른 셈이었다. 2차 백신 접종이 시행되던 10월까지 조심해가며 4권을 읽었다.

3권을 읽으며 “왜 이리 먹먹한가? 강수와 진예, 강모와 강실이”, “마음이 놓이고 청암부인과 자기(효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맥이 서로 따뜻하게 흘러드는 것을 느낀다. 피도 살도 섞이지 않았으나, 자신이 집안의 즐거움을 잇는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실감되었다(p.230)”고 회원들은 댓글을 달았다. 특히 3권에서 청암 부인이 세상을 떴을 때 우울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청암 부인의 망혼제를 기점으로 실제 모임의 탄력도 줄었다.

2021년 6월 23일(수) 7시	혼불 1권 “흔들리는 바람1” 대면	
7월 28일(수) 7시	혼불 2권 “흔들리는 바람2”	비대면
9월 29일(수) 7시	혼불 3권 “평토제1”	비대면
10월 27일(수) 7시	혼불 4권 “평토제2”	비대면

11월 24일(수) 7시 혼불 5권 “아소, 님하1” 대면

12월 22일(수) 7시 혼불 6권 “아소, 님하2” 대면

실내에서 읽고 토론하는 데 조금 피로도가 느껴졌는지, 답사를 가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해서 11월 20일 토요일에 답사가 성사되었다. 다음은 간략한 일정이다. 소박한 김밥과 커피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혼불 문학관을 관람하였다. 장○○이 굴 1박스, 강○현이 커피 8잔, 장○근이 호두과자를 지원했다.

개별이동 - 남원 혼불 문학관(관계자 해설) - 주변 산책 및 간단한
간식 요기(김밥) - 옛 서도역 경유 - 전주 귀환 후 저녁(와인 또는 곡차)
*혼불문학관이 전시물 교체로 휴관, 고전소설문학관 관람.

이 와중에 영화를 보는 모임이 구성되었고 ‘가을의 전설’을 감상하였다. 박○○은 첫 작품전을 열고 회원들의 축하를 받았다. 12월 송년회는 『혼불』 6권을 읽고 한해를 무사히 마친 데 대해 감사하는 자리로 삼았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덕에 6권을 하다 말았다.

2022년 새해에도 코비드(오미크론)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 1월 21일, 최○○은 부산 지사로 발령이 나서 더 이상 참석이 어렵게 되었다. 22일, 나○○ 총무는 거리두기로 인해 참석을 유보하는 회원이 있다며 의견을 모아 1월 모임을 순연하였다. 2월에도 코비드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격리되는 회원도 늘어났다. 할 수 없이 1, 2월을 건너뛰고, 3월에 대면으로 만났다.

2022년 3월 23일(수) 7시 혼불 6권 “아소, 님하2” 대면

5월 25일(수) 7시 혼불 7권 “꽃심을 지닌 땅1” 대면

6월 22일(수) 7시 혼불 8권 “꽃심을 지닌 땅2” 대면

4월을 건너뛰고, 우여곡절 끝에 5, 6, 7월에 연속 모임을 가져 ‘혼불 장정’을 마칠 수 있었다. 7월에는 8월에 빠지는 회원이 많아 오후부터 길게 보여 쪽 다 읽었기 때문에 9권과 10권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였다. 9권, 10권을 한꺼번에 진행했던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혼불』에 대한 회원들의 태도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2) 흔들리는 『혼불』

『혼불』은 최명희님이 1980년 4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17년 동안 혼신을 바친 대하소설로, 20세기 말 한국문학의 새 지평을 연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혼불』은 일제 강점기 때 사매면 매안마을의 양반가를 지키려는 3대의 며느리들과 거명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숨결과 손길, 염원과 애증을 우리말의 아름다운 가락으로 생생하게 복원하여 형상화했다.

혼불문학관에 붙은 안내문은 『혼불』과 최명희에 대한 공식 기억이다. 『혼불』의 키워드 꽃심이 전주의 이칭(異稱)이 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꽃심은 1998년 호암상을 수상할 때 ‘수난을 이겨내는 힘, 아름다움, 생명력’을 가리키는 말로 최명희가 사용하였고, ‘전라도가 그 꽃심이 있는 생명의 땅’이라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후백제—조선의 근거지인 전주를 가리킨다. 전주에는 그래서 시립도서관 이름이 꽃심이다. 지명으로는 전주 외곽 완주 소양면 화심리가 있는데, 최명희가 여기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다. 작가 최명희는 전주에서 태어났지만 『혼불』의 무대가 남원이고, 실제 작가의 고향

도 남원이라고 한다. 혼불문학관 옆 청호저수지는 최명희 집안에서 만든 것이라고 하니, 그가 『혼불』의 무대를 남원으로 잡은 사정을 알 만했다.

그는 5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떴고, 그의 묘소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가까운, 전주 덕진구 건지산 기슭에 있다. 그는 『혼불』을 쓰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다. 그럴 만했다. 그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을 때 “혼불 하나면 됩니다. 참으로 잘 살고 갑니다.”라고 스스로 말했을 정도였으니까.

특히 “언어는 정신의 지문입니다. 한나라, 한민족의 정체는 모국어에 담겨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의 언어관은 국어 교사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겠지만, 그의 언어에 대한 애정은 국어 차원에 그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전라도 토박이 말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

이 지점에서 『혼불』에 대한 지역민의 호감을 형성한다. 『혼불』은 여전히 “지역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문학유산으로 활용”되기를 요청받는다(김승중, 2018). 호남 지역에서 최명희의 『혼불』이 사랑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좋을까 이?”로 시작하는 점봉이네의 말을 시작으로 구수하다 못해 가슴 속에 내려앉는 듯한 토착어의 향연이 『혼불』에는 펼쳐진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혼불』의 언어는 표준화된 국어가 아니라, 그와 대결하는 토착어[vernacular]일 것이다(이반 일리치, 1981, 2장 토박이 가치). 『혼불』의 토박이말은 자부심과 정체성(正體性)이 결합된 지역민의 정서를 형성하고 지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혼불』을 필사하며 읽는 모임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2021년, 『혼불』 모임은 어느 회원 말마따나 ‘『혼불』에 대한 무한 애정’으로 시작하였다. 처음 읽는 회원들은 유명하고 모두 칭찬하는 작품이니까 읽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전주 시민이었던 만큼 지역인 최명희의 작품이라는 프라이드 역시 숨기지 않았다.

『혼불』에 대한 충성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3권을 넘어, 11월 남원 혼불문학관 답사를 마친 뒤의 어느 어간이었다. 우선, 전통 명절이나 행

사 등에 대한 섬세하고 치밀한 고증이, 소설의 맥락에서 벗어나 사전(事典)의 양식을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정호웅, 1997). 이런 점은 대체로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정성스러운 관찰과 탐구의 결과라는 점이 양해되면서 큰 흠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혼불』의 반을 넘게 읽었던 1월 어느 날, 강○○은 다음과 같은 문자를 단톡방에 올렸다. 그는 코로나로 모임이 쉬는 동안에 미리 『혼불』의 나머지를 읽어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혼불』 8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작가가 얘기를 어떻게 끝낼까 해서. 9권 넘어가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다. 가야, 후백제, 단군 얘기를 그토록 길게 심 선생의 입을 빌려 했어야 할까? 10권까지 다 읽고 허탈했다. 허명(虛名)! 맨 먼저 떠오른 말이었다. 작가가 당면한 현실에 대해 갖는 문제의식의 결여(이것이 거꾸로 과거의 영광에 대한 회상으로 합리화되는 건 아닐까.)

아울러 “최명희의 명성은 전라도 사람들의 자존심 회복 욕구에, 검증되지 않은 민족주의가 결합하면서 과장된 게 아닐까?”라는 의문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최명희는 국어와 토박이말의 대립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2월 들어 나의 일기에도 “혼불을 읽으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인물 묘사, 서술의 연관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7권, 8권 갈수록.”이라고 적고 있다. 이어 또 “혼불은 심각하다고 본다. 전라도 지역 정체성, 민족주의가 범람하면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 심진학이나 도환을 통해 말하는 최명희의 역사 설교가 지나치다”라는 코멘트도 달려 있었는데, (오향녕 일기, 2022년 2월 13일) 비슷한 시기에 박○○은 『혼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메모 형식으로 올렸다.

인물 성격의 설득력 결여와 느닷없음(강실이, 강모는 물론 나중에 나오는 방물장수까지 허술하기 그지없다), 허망한 마무리(마무리라고 부를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민속백과사전과 소설을 오가는 문체의 혼동….

춘복이의 분노와 강실이의 무력감에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 것도 이 무렵이었다. 물론 각 계층의 삶에 대한 태도와 심성의 포착은 훌륭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청암부인, 효원, 응구네 같은 성격을 그려낼 때는 천재성을 보여준다는 데 회원들은 동의했다. 다만, 『혼불』 끝까지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데로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졌다. 작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묘사와 사건 전개를 중심으로 소설 구성의 완결성을 추구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2022년 3월에 읽은 6권은 『혼불』 모임 중 가장 생동감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3권 이후 ‘지역이 낳은 위대한 작가’에 대한 의심으로 불편했던 마음을 내려놓아도 되었던 것이 이유였지 않았나 한다. 『혼불』 옹호를 위한 부담, 『혼불』에 대한 불경(不敬)의 혐의에서 벗어났을 때의 흥가분함이었다. 하필이면 우리 모임이 3권까지의 환희를 거쳐, 이후 6권까지의 의심과 ‘투항적 존경’에서 벗어났을 때 6권 뒷표지에는 고은, 박노해의 헌사(獻辭)와 편지글이 수록되어 있었다. 고명한 시인들의 고상하고 정중한 헌사가 몇몇 회원들에겐 호들갑에 가깝게 느껴졌다고 했다.

김윤식이 ‘한길사판 7권 반’이라고 부른 부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김윤식, 1999, p.36) 우연하게도 『혼불』 3권을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회원들의 ‘비판적 접근’이 시작되었다. 소설 자체의 어설픔이 크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혼불’이란 이름으로 어설픔을 합리화한다면 그거야말로 이 땅에 살던 혼불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 하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누군가 최명희 작가는 『혼불』을 쓰기 위해 태어나 살다가 죽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도 제기하였다. 오○○은 “내가 보기에 그는 『혼불』에

치인 듯하다. 감당하지 못할, 아니 감당할 필요가 없는 과도한 짐을 자처하다가 치어버린…”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민족주의 과잉으로 내달았던 8권 이후의 내용으로 보아, 최명희가 살아서 6·25 이후까지 ‘완성’했다고 해도, 달리 탈출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혼불은 저도 오래 전에 읽어서 세세한 기억은 못합니다. 그러나 읽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지역에서 쉽게 말하지 못하는 생각은 작품에 대한 평가가 과장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한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마치 우리 지역에도 대하소설 작가가 있다, 박경리나 조정래 못지않은 사람 있다 하는 것처럼 너무 힘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길게 설명하는 부분은 저도 지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혼불』 모임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지역에서 국어 교사를 하던 최○경은 회원들의 질문에 위와 같은 회신을 보내왔다. 이는 『혼불』에 대한, 그리고 지역의 대표 작가 최명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인식에 많은 편차가 있음을 솔직하게 보여준다. ‘이 지역에서 쉽게 말하지 못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보는 『혼불』 모임에 대한 관찰은 『혼불』에 대한 문학비평이 아니다. 비평의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의 견해나 소감은 아마추어리즘의 소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비평의 측면에서도 시민 회원들의 견해나 관점에는 의미 있는 대목이나 주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기념관이나 시(市)의 공식적 또는 일반적 평판이나 기억과 다른 점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작은 사람들’인 시민들의 일상에서 회자되는 『혼불』에 대한 이해의 다양성과 균열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 다른 관점이야말로 『혼불』로부터 빠져나와 『혼불』을 바라보는 위치를 제공해주며, 『혼불』을 포함한 문학활동의 새로운 전망으로 나아가는 열린 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4. ‘공유지’ 읽기의 은닉 대본

1) 공유지를 만나는 길

『혼불』 모임이 지역의 주류 기억에 대한 균열을 보여주었다면, 이 모임은 일상에서 시민들이 정치의식을 어떻게 축적하는지 보여준다. 전주 시민들과 경험한 두 번째 일상사 역시 독서모임이다. 『혼불』 모임이 끝난 지 1년 뒤인 2023년 4월, 각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모임을 만들었다. 필자는 이 모임의 출발에 간여하였는데, 당시 모임 이름은 ‘이제는 같이 살자 프로젝트’였다. 주변에 돌린 안내문은 다음과 같았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을 강요하는 시절에, 같이 살자고 만든 모임 중 하나입니다. 사유화, 사유재산의 이데올로기에 떠밀린 공유, 공유지, 공공성의 가치를 논하는 역사, 철학, 인류학의 보석 같은 책을 모았습니다. 한 권, 한 권, 읽어가며 일단 3년만 내공을 쌓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대의 새벽을 만나겠지요?

모임 일시는 매월 4째주 금요일, 저녁 7시~9시로 정하였고, 4월에는 『도둑이야!』를 읽기로 했다(피터 라인보우 저, 서창현 옮김, 『도둑이야!(Stop, Thief!: The Commons, Enclosures, and Resistance)』(2014), 갈무리, 2021). 장소는 전주시 효자동 알마마테르 2층으로 하였다.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생계에 따른 지각, 결석 모두 양해됩니다”, “사느라 바빠서 못 읽고 와도 이해합니다”라는 세칭 낚시성 조건도 추가하여 안내문을 돌렸다. 아울러 앞으로 읽을지 모르는 책 후보를 단독방에 올렸다. 일단 읽을 후보

를 올려놓고, 이 중에서 논의를 통해 다음에 읽을 책을 정하기로 하였다.

- P. A. 크로포트킨, 김영범 옮김, 『만물은 서로 돕는다』(1914), 르네상스, 2014.
- 제임스 C. 스콧 저, 전상인 역,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은닉 대본』(1992), 후마니타스, 2020.
- 마리아 미즈, 최재인 옮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1986), 갈무리, 2014.
- 엘리너 오스트롬 저, 윤홍근·안도경 옮김,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1990), RHK, 2010.
- 이반 일리치 저, 권루시안 옮김,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1992), 느린 걸음, 2013.
-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김민철 옮김, 『캘리번과 마녀』(2004), 갈무리, 2011.
- 피터 라인보우 저, 정남영 옮김, 『마그나카르타 선언』(2008) 갈무리, 2012.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히트, 정남영·윤영광 옮김, 『공통체: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2009), 사월의책, 2014.
- 데이비드 볼리어, 배수현 옮김, 『공유인으로 사고하라』(2014), 갈무리, 2015.
- 에릭 T. 프레이포글(Eric T. Freyfogle), 박경미 옮김, 『가장 오래된 과제』(2017), 한울, 2021.

회원은 이전 『혼불』에 참여했던 사람과 새로 들어온 사람이 반반이었다. 특히 김○○, 이○○, 정○○ 등 아직 30세가 되지 않은 멤버가 참여하기로 했다. 『혼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학, 이주 등으로 불규칙하게 참석하거나 성원이 바뀌는 일도 생겼다.

회원: 장○○, 박○○, 문○○, 이○○, 김○○1, 나○○, 김○○2, 강○○, 김○○3, 최○○1, 배○○, 최○○2, 정○○, 최○○3, 김○○4 등 15명

총무는 김○○1이 자원하여 맡았고, 첫 발제는 장○○, 박○○이 『도둑이야!』 1, 2장 및 3장을 나누어 맡았다. 이번에는 단톡방 외에 일지(日誌)도 함께 남기기로 했다. 일지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단톡방은 전체를 텍스트 또는 메시지 전체를 ‘대화 내용 내보내기’를 통하여 저장해 둘 수 있다. 하지만 매달 진행을 질감으로 느끼는 일지 파일은 독특한 소속감과 성실성을 상징했다.

아울러 ‘씨앗문장’을 통해 ‘열 사람 정도가 올리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고 요약이 되는’ 효과를 도모하고 멤버쉽의 요건으로 삼기로 했다. 실제로 회원이 각자 선택하는 인상 깊은 문장인 씨앗문장은 자신의 관점에서 놓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이해에 큰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4월부터 함께 읽기로 했던 라인보우의 책은 모두에게 낯설었는데, 박○○이 2021년 라인보우의 강연 영상을 찾아 공유하면서 조금 덜 어색할 수 있었다. 2021년 11월 6일(토)에 진행된 라인보우의 강연으로, 제목은 “기후 재난의 한복판에 있는 공통장(The Commons in the Midst of Climate Disaster)였다(<https://youtu.be/n2cFbShwfVI>). 하지만 막상 그의 저서 『도둑이야!』를 접했을 때는 동화(童話) 같은 제목에 속은 듯하다는 회원도 몇몇 있었다. 왜냐하면 개별 논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주제의 연결성과 학문적 깊이는 뛰어나지만, 그만큼 쉬운 책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차례 더 읽은 뒤 입을 책을 바꾸게 되었고, 『도둑이야!』는 우회한 뒤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로 하였다.

2023년 4월 28일(금) 저녁 7시 『도둑이야!』 1부 1, 2, 3장

5월 26일(금) 저녁 7시 『도둑이야!』 2부 4, 5장

6월 23일(금) 저녁 7시 『도둑이야!』 3부 8, 9장

이 책이 어렵다고는 했지만, “알다시피 삼림은(숲은) 주변 지역 안팎 모두에서 복잡한 사회를 지탱해왔다. 나무꾼, 숲 굽는 사람, 나막신 만드는 사람, 바구니 만드는 사람, 가구장이, 무두(가죽)장이, 옹기장이, 기와장이, 대장장이, 유리 제조자, 석회 제조자 등 …”(피터 라인보우, 2014, p.80)과 같은 대목에는 공감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렇게 모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서학동사진미술관 10주년 기념 김지연사진집 출판 기념전인 ‘전주의 봄날’, 6월 21일 개봉된 영화 ‘수라’ 관람이 이어졌다. 특히 김지연 전시의 포스터로 사용한 사진 속의 전주천 버드나무숲은 2023년 3월 전주시에서 다 베어버려서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라 더욱 호소력을 가졌다. 문○○은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의 강좌와 세미나를, 박○○은 미안마 민주화운동을 위한 모금을 소개하기도 했다. 필자는 모임의 취지와 통하는 기획 기사를 소개하였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6819.html?_ns=t1).

2023년 7월 28일(금) 저녁 7시 『캘리번과 마녀』 서문, 서론, 1장

8월 25일(금) 저녁 7시 『캘리번과 마녀』 1장

9월 22일(금) 저녁 7시 『캘리번과 마녀』 2장

10월 27일(금) 저녁 7시 『캘리번과 마녀』 2장

11월 24일(금) 저녁 7시 『캘리번과 마녀』 3장

12월 29일(금) 저녁 7시 『캘리번과 마녀』 4장, 5장

『캘리번과 마녀』를 읽을 때는 따로 진도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되는대로 읽고, 다음 달에 이어서 읽는 방식을 취했는데, 다들 각자 다른 색조로 이 새로운 방식을 좋아했다. 페데리치의 이 책은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남성이 임노동자로 전환되는 한편 여성은 자립성을 잃은 가사노동, 즉 상품 생산의 바깥으로 내몰렸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의 시초축적(본원적 축적)의 맥락에서 마녀사냥을 다시 해석했다. 페데리치의 연구는 마리아 미즈(최재인 옮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1986), 갈무리, 2014) 연구에 기초하였는데, 미즈의 2014년판에는 페데리치가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김○○3은 이 책의 영어본을 구하여 번역본과 대조하였다. 일례로 번역본 p.197의 일부 문장을 “자본주의는 자연/본성이라는 장벽을 깨트림으로써, (또한 전 산업사회에서 익숙한 바) 노동일을 태양, 계절 순환, 신체 그 자체의 한계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자연상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로 정확히 바로잡기도 했다. 그는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주소도 알려주었다 (<https://annas-archive.org/>). 필자도 ‘커먼즈 번역 네트워크(<http://commonstrans.net/>)’ 및 ‘커먼즈’ 연구 홈페이지(OnTheCommons.org)를 소개하였다.

역시 이 과정에서도 회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 ‘육사와 국방부의 흥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중단 촉구 온라인 서명’,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 ‘현장사례연구- 사회적경제와 지역생태계’ 특강 등을 알리고 참여했다. 회원들 간의 공유 실천도 이어졌다. 커피, 샌드위치, 와인, 맥주, 술떡(기정떡), 쌍화차 등을 각자 알아서 나누어 먹었다. 특히 정읍에서 가져온 기정떡과 쌍화차는 호응이 좋아 공유를 강제당해야 했다. 12월 모임은 한주 늦추어 송년회를 겸하였다.

한편 『캘리번과 마녀』를 마친 뒤에는 이반 일리치의 『그림자 노동』을 선택하였다(이반 일리치, 노승영 옮김, 『그림자 노동』(1981), 사월의 책, 2015). 이 책은 모두 5편의 글로 되어 있는데, 이 중 5장을 읽기로 했다. 5장이 ‘그림자 노동’인데, 일리치는 매일처럼 직장에 나가 월급을 받고 행

하는 임금노동이나 집안 유지를 위해 주부가 행하는 가사노동 등이 지난 수천 년의 인간 활동과는 전혀 다른 ‘기이한’ 노동임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직장 통근, 자기 계발, 스펙 쌓기 등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요되는 모든 무급 활동이 자율적인 삶을 억압하는 ‘그림자 노동’이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캘리번과 마녀』의 후속으로 회원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2024년 1월 26일(금) 저녁 7시	『그림자 노동』 5장
2월 29일(목) 저녁 7시	『그림자 노동』 2장
3월 31일(토) 아침 9시~오후 5시	지리산굴레길 1구간(주천-운봉) 답사
4월 29일(목) 저녁 7시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1장
5월 31일(금) 저녁 7시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2장

『그림자 노동』은 당초 5장을 읽고 마치려고 했던 것인데, 필자가 튀르키예 이스탄불 대학에서 했던 특강에서 힌트를 얻은 김○○ 총무가 『그림자 노동』 2장을 한 번 더 읽자고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필자의 글은, 「15C 한글, 21C 한글: 언어 생활의 의문과 실천」인데, 이스탄불대 한국학과 초청 강연 교재였다(2024년 2월 22일 특강). 이는 조선 세종 시대의 한글창제와 그 해석을, 일리치의 『그림자 노동』 2장에서 다룬 스페인 이자벨라 여왕 당시 문법학자 네브리하의 논리와 연관시켜 설명해본 글이었다. 한글창제를 세종(世宗)의 애민(愛民) 정신, 민족주의(民族主義, 실은 국가주의)에서 해석하는 것보다, 조선의 중앙집권 체제 성립과 연관시켜 설명한 시도였는데, 모임에서는 일리가 있다는 반응과 그래도 한글의 민중성과 우수성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섞여 나왔다. 3월 답사 이후 우리의 책은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로 다시 바뀌었다.

책도 바뀌고 계절도 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들이 얘기가 나왔다. 하여

3월 31일(일)에 지리산 둘레길을 걷기로 하였다. 왕복 3시간(14.1km)이라고 했는데, 다들 몸이 무거워 실은 6시간이 걸렸다. 각자 물, 나물 켈 도구를 가지고 오기로 하였다. 장○○과 최○○2가 사전 답사도 다녀왔다. 그런데 이 사전 답사라는 거,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걸 깨닫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았다.

남원 57번지 게스트하우스 겸 카페에 주차하였다. 박○○은 카페에서 예쁜 수국을 샀다. 사전 답사를 왔던 최○○을 따라 걷는데, 이상하게 남원 쪽 방향이었다. ‘둘레길이 남원에서 출발하는데… 답사한 사람이 알겠지’ 생각하며, 그냥 따라갔다. 10분쯤 갔을까, 장○○이 “이쪽이 아닌가봐” 하더니, 남원 쪽에서 걸어오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는 저쪽이라며 우리가 온 내송마을 입구를 가리켰다. 알고 보니 거기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누군가가 최○○2, 장○○을 보고, “여기 사전 답사 왔던 거 아니었어?”하고 물었다. “왔었지! 여기까지.” 장○○은 안내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람들은 어이없어 웃고 말했다. “둘레길은 시작도 안 한 거잖아! 그게 무슨 답사야!” 그래도 바쁜 시간에 사전 답사를 한 게 어딘가.

2) 마녀에서 도둑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함께 산다. 집, 자동차, 옷 등 사유(私有)하고 있는 것이 많지만, 그리고 이런 사적 소유가 ‘신성한 듯’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서로 돕고 함께 쓰며 산다. 음식도 나눠 먹고 옷도 거저 주며 밥값도 서로 내려고 한다. 그리곤 즐거워한다. 힘든 일, 좋은 일이 있으면 십시일반(十匙一飯) 격려하고 축하하며 마음과 재화를 나눈다. ‘이제는 같이 살자’라고 이름 붙인 이 모임은 이와 같은 토양에서 출발하였다.

비록 『도둑이야!』처럼 다소 어려워 교재를 바꾸었고, 공유지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지 않은 모임이기는 하지만, 회원들의 실천과 논리는 한결 적극적이고 단단해져가고 있었다. 김○○2은 “공유지를 국유화한다는 뉴스가 낮

다. 산림천택(山林川澤) 이슈가 생각나서 공유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매각’이 심각하다고 글을 올렸다(<https://v.daum.net/v/20231119182101480>. ‘돈줄 마른 지자체… “노는 땅들 팔아요’, 서울신문 2023년 11월 19일). 이에 따르면 전국 공유재산은 1,026조 원이고, 전북은 6,206억 상당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 액수 역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세수 감소로 돈줄이 메마른 지방자치단체가 활용되지 않은 유휴부지, 일명 ‘노는 땅’ 정리에 나서고 있다는 고발이었다. ‘노는 땅’이란 공유재산이다. 정부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휴재산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고도 했다. ‘적극 활용’이란 다름 아닌 임대와 매각이다.

최○○2는 가까이 전주천 버드나무에 주목했다. 시민들이 ‘버드나무 학살’이라고 부른 사건이었다(한겨레21 2024년 3월 25일). 한옥마을 입구 쪽인 남천교 앞 버드나무 밑동들이 싹 베어졌다. 2023년 2월 29일 새벽 6시30분 전주시에서 버드나무 40그루 정도를 베어냈다. 당초 전북환경운동연합 2월 14일 전주시 조례에 의한 협의·자문 기구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에서 ‘버드나무를 그대로 두라’고 공식 의견을 낸 적이 있었음에도 시청에서 벌인 일이었다. 3월에도 아름드리 버드나무 260여 그루를 포함해 1천여 그루를 베어낸 적이 있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인터뷰에서 ‘무차별 벌목은 없을 것’이라 했는데, 이렇게 새벽에 또 베어버린 것이다. 도대체 무슨 내막이 있는 것일까?

‘이제는 같이 살자’ 모임의 회원 내면에서 발효되는, 또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식이나 실천이 무엇이었는지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두 편의 글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는 모임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첫째, 필자가 잊고 있던 기억을 다시 되살린 것이다. 몇 년 전 강의 시간에 문화재 수집과 처분에 대해 논의하다가 내가 관계부처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아래는 기획재정부 담당자와 나누었던 실제 대화이다.

“문화재가 국유재산인가요? 법령에 어떻게 되나요?”

“아, 그게, 저희가 논의한 뒤에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며칠 뒤,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책임감이 느껴졌다.)

“문화재도 국유재산입니다. 취득, 관리, 처분에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겨울 나고 북쪽으로 날아가는 청둥오리도 국유재산인가요?”

“네? ……”

“청둥오리는 천연기념물이거든요. 무형문화재예요. 근데 그 애들이 철따라 만주나 아산만을 오가는 걸 어떻게 관리하나요? 국유재산 목록에 매번 분실, 취득이라고 적을 수도 없고.”

“…….”

위 대화는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함축하고 있다. 한 가지만 보자면, 국유재산법은 마치 ‘국가 안에 있는 건 사유재산 빼고’ 모두 국가 소유, 즉 국유라는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오항녕, 2023-3). 문화재=문화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 이후로도 이런 이데올로기는 지속되게 유지되었다. 국가유산 역시 매매, 수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이런 억지스러운 상황은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이나 정선(鄭勳)의 「금강전도」가 각각 사유(私有)로 간송미술관, 리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음에도 모두 국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데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유란 용례에 담긴 혼선은 이 개념이 공유(共有)와 사유(私有) 모두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안에 있는 건 사유재산 빼고 모두 국가 소유’라는 의미의 국유 용례를 통해 마치 ‘국유란 국민의 것이란 뜻’이라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낸다.

국민들 것이니까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취득되고 사용되고 처분되지 하는 착각이다. 말하자면 국유가 공유(共有)를 뜻하나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더 헛갈리게 만드는 것은 법률에서 ‘공유(公有)’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다. 이 공유(公有)는 지방정부의 재산이나 국유를 의미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공유수면법)」[법률 제19573호]).

남미의 독재 국가들만 다국적 기업에 도로, 항만, 공항을 매각해서 부정 한 정치자금이나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다. 대한제국 말기에 이씨 왕가가 미국에 넘긴 평안도 운산 금광 채굴권과 일본에 넘긴 경인철도 부설권부터,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교량, 공항, 이동통신 시스템, 인터넷 등이 이미 사기업에 넘어갔거나 자본가들이 탐내는 먹잇감이다.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통제, 관리권을 갖게 되면 경쟁할 필요 없이 독점, 과점 가격을 통해 위험 없이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전력은 무늬만 공기업이다. 공사임에도 첫째, 이윤을 얻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는 싸고, 국민의 일상 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가정용 전기는 비싸며, 둘째, 한전은 적자를 보며 세금으로 충당하는 반면, 사기업이 포함된 자회사들은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인 척하면서 공익성을 사익으로 바꾸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사기업은 적자 KTX와 흑자 SRT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물, 공기, 바다, 강, 산이라는 자연 외에, 우리가 그리고 후손이 누려야 할 공유자산은 의료 설비와 기술, 철도와 도로 같은 교통 시설, 도시의 공원 같은 주거 시설, 인터넷의 플랫폼 등 지천에 널려 있다. 도둑들이 노리는 대표적인 먹잇감이 인천공항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쉽다(오항녕, 2023-1). ‘도둑들’은 ‘이제는 같이 살자’ 모임에서 읽은 바 있는 피터 라인보우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공유지를 훔치는 세력을 일컫던 말이다.

지금 이 공유지가 효율화, 선진화 등의 미명으로 사유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야합을 시도하는지 어느 때보다 시민들이 눈 부릅뜨고 살펴야 할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공유자산의 사유화는 대미, 대일 굴욕외교보다 훨

씬 되돌리기 어렵고, 그만큼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재앙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보이거나 알고 있다면 인권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등에 알리면 된다. 언론다운 언론에 제보해도 좋다. 하지만 내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는 같이 살자’처럼 시민들끼리 두런두런, 수군수군 얘기를 나누는 것이다.

둘째, 박○○이 전라도닷컴에서 가져온 모티브였다. 전라도닷컴은 2000년 10월 웹진으로 출발해 2002년 3월 월간지를 발간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전라도닷컴은 “혼자 말고 향꾸네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전라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기록합니다”, “전라도말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장엄한 삶을 재발견합니다”라고 지향을 밝히고 있다 (<http://jeonlado.com/v3/>). 아래는 『전라도닷컴』 2023년 5월호에 실렸던 두 할머니의 대화이다. 이들이 사는 적금도는 여수 아래 남해 바다 여자만 초입에 있는 섬이다.

“오매, 함씨야! 그 고생을 하고 나헌티 갈라주러 왔소?”

“오매, 함씨야! 배고파겠소.”

“오매, 함씨야! 안 추웠소.”

함씨야를 연발하는 남춘임(71) 어매의 말속엔 고마움과 안쓰러움이 실린다.

“어짜쓰까.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헌 함씨가 하리내(하루종일) 이 걸 파갓고 날 갖다주네.”

“많애 많애, 이것도 많애”라고 떨어내는 손과, “아녀 아녀”라며 한 주먹이라도 더 보태주려 안달하는 손이 반지락 바구니 위에서 부딪친다.

이 함씨들, 그러니까 할매, 할머니들이 나누는 대화에 나오는 반지락은 바지라기, 바지락이라 해서 칼국수나 봉골레 파스타에 넣어 먹는 그 조개이다. 남춘임 할머니가 거동이 쉽지 않아 반지락을 캐지 못했나 보다. 박동심

할머니는 캐오던 반지락을 남 할머니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이다.

필자는 이 기사를 더 조사하던 중, 여수 적금도 어민들은 이미 지난 1960년대 민간회사와 마을어장 관리 위탁 계약을 맺었다가 낭패를 당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위탁관리업체의 남획으로 결국 어장이 훼손되었고, 주민들은 10년간의 법정 소송을 거쳐 2006년에야 다시 어장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다 2011년 다시 이명박 정부에 의한 갯벌 사유화가 추진되었다. 지금은 2022년 제정되어 2023년 시행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약칭 갯벌법)’으로 갯벌의 관리, 복원,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오항녕, 2024-1).

5. 맺음말

아직도 그런 듯하지만, 역사학은 적어도 두 가지 방향에서 비판을 받았다. 첫째는 현대사 또는 당대사의 방기(放棄)이다. 오죽하면 같은 문명을 사는 동시대 사람들의 역사는 사회학에 넘기고, 동시대 다른 문명 사람들의 역사는 인류학에 넘겼다는 소리를 들었겠는가(폴 벤즈, 1996, p.448). 둘째로, 정치사 등 ‘이름난 사건이나 인물’만 역사에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사라지게 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책에는 술한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 중 저 성을 쌓는 데 돌을 나른 자가 있었는데”라는 반문이 가능했던 것이다(마커스 래디커, 2024). 물론 굳이 일상사가 아니더라도 ‘아래로부터의 역사’, ‘작은 사람들의 역사’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본고는 역사학 차원에서 볼 때는 첫 번째 비판을 벗어나고, 두 번째 전통을 이어가려는 뜻을 품고 작성되었다.

이런 취지에서 전주 시민들의 두 차례 독서모임을 관찰하였는데, 일상사에 대한 D. 포이케르트, A. 뤼트케, J. C. 스콧의 전망과 방법, 이론을 통해 이 당대의 활동과 사건을 묘사, 서술,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혼불』을 읽은 모임, 공유

지에 관한 책을 읽는 모임이 대상이었다. 길지 않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두 모임 모두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들이 모였다. 코비드19와 대결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혼불』 읽기는 지역의 공식 기억과 함께, 또는 『혼불』의 필사를 경험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줌(ZOOM) 모임, 모임 취소, 대면을 오가며 이루어진 시간은 『혼불』 토박이말의 정겨움과 함께 무르익었다. 동시에 『혼불』의 박물지적 성격, 소설적 완결성, 인물 성격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의식도 싹트기 시작했다. 특히 『혼불』 6권 이후의 민족주의 과잉은 이런 분위기를 강화했다. 필자는 이를 고착되기보다 탄력성 있는 자기의식(Eigensinn)으로 설명하고 싶다. 『혼불』을 드나들며 새로운 전망으로 나아가는 열린 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일상은 “오히려 그 안에서 생산적 활동이 새로운 창조를 맞이하러 나가는 그러한 영역”이 아닐까?(앙리 르페브르, 1968, p.62)

공유지 읽기는 『혼불』에 비해 지역 시민으로서의 ‘마음 고생’을 겪지 않았다. 그보다 모임이 진행되면서 공유지에 대한 인식이 정교해지고 주체적으로 이슈와 논의를 서로 ‘물어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적 소유가 신성시되는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꾼에’ 사는 방식 또한 삶의 바탕에 깔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 공유의 삶이 현재의 각자도생에 지친 나날을 벗어나게 해줄 비상구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희망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역사에는 공유지를 잃으면서 경제적 고난과 함께 문화적 재난(cultural catastrophes)을 겪었다는 증거도 분명히 있었으니 말이다(에릭 R. 울프, 1997, pp.316~328).

필자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모임 자체가 J. 스콧이 말한 ‘은닉 대본’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각자 살기 바빠 쫓기듯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듯하지만, 또 권력도 부(富)도 갖지 못해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인지 모르지만, 공공재산을 파는 정부를 향해, 전주천 버드나무를 베는 시청을 향해 두런두런 끼리끼리 모여서 쓴소리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헤게모니에 포섭되지 않으면서, 하부정치는 정치적 자기의식을 보존, 형성해간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일상성을, 특히 나쁜하고도 불안한 일상성을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산업사회의 도시적 특징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일리가 있다. 동시에 산업 사회와 도시는 자본주의와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 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수로 세어진다.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다. … 그러나 사람들은 태어나고 살고 죽는다. 인간이 즐기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의이다. 그야말로 지금 여기에서이다.”(앙리 르페브르, 1968, pp.72~73) 모든 역사는 지금 여기 있는 내 몸을 거친다.

〈참고문헌〉

- 알프 뢰트케 (1995). *The history of everyday life: reconstructing historical experiences and ways of life*. 송충기 옮김 (2020). 알프 뢰트케의 일상사 연구와 ‘아집’, 고양: 역사비평사.
- 알프 뢰트케 외, *Alltagsgeschichte: zur Rekonstruktion historischer Erfahrungen und Lebensweisen*. 이동기 외 옮김 (2002), *일상사란 무엇인가*, 서울: 청년사.
- 앙리 르페브르 (1968),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박정자 옮김 (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기파랑.
- 이반 일리치 (1981), *Shadow work*. 노승영 옮김 (2015). *그림자 노동*, 고양: 사월의책.
- 데이비드 볼리어 (2014). *Think like a commoner*. 배수현 옮김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서울: 갈무리.
- 테틀레프 포이케르트 (1982), *Volksgenossen und Gemeinschaftsfremde*. 김학이 옮김 (2003). *나치 시대의 일상사*, 서울: 개마고원.
- James C. Scott, (1985). *Weapons of the Weak-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제임스 C. 스콧 (1992),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s*. 전상인 옮김 (2020), *은닉 대본: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서울: 후마니타스.
- 마리아 미즈 (1986), *Patriarchy and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최재인 옮김, (2014).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서울: 갈무리.
- 폴 벤느 (1996), *Comment on écrit l’histoire*. 김현경, 이상길 옮김 (2004),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 서울: 새물결.

- 피터 라인보우 (2014), 서창현 옮김 (2021), 도둑이야!, 서울: 갈무리.
- 김귀옥 (2014). 구술사 연구, 파주: 한올아카데미.
- 김승중 (2018). 전북지역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 최명희 <혼불>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4.
- 김윤식 (1999), 혜결의 시선으로 본 『혼불』. 현대문학이론연구, 12,
- 안병직 (2012), 한국 생활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歐美학계의 일상사 연구경향과 비교의 관점에서. 역사학보, 213.
- 윤세병 (2020).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사 교육의 모색, 역사교육논집, 75.
- 윤택림 편역 (2010),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서울: 아르케.
- 이용기 (2009), 역사학, 구술사를 만나다, 역사와현실, 71.
- 이유재 (2020). 독일 일상사 연구와 알프 뤼트케의 삶, 알프 뤼트케의 일상사 연구와 '아집', 고양: 역사비평사.
- 이훈상 (2009), 지역사, 지역사의 특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체성 만들기', 영남학, 16.
- 정호웅 (1997), 박물관(博物誌)의 형식: 최명희 대하소설 『혼불』론. 황해문화, 14.
- 최명희 (1996), 혼불, 서울: 한길사.
- 허영란 (2013). 한국 구술사의 현황과 대안적 역사쓰기, 역사비평.
- 홍성덕 (2015). 전주의 역사문화 정체성과 전주학 연구, 역사와실학, 56.
- 오향녕 (2023-1). 「별건 대낮에 서성대는 도둑들」, 인권연대 발자국통신, 2023년 5월 24일.
- 오향녕 (2023-2). '충청 역사'의 시민권과 위상: 지역사의 갈림돌과 권위에 대한 시론, 충청 국학 연구의 현황과 새 지평,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오향녕 (2023-3). 공유지(the Commons), 문명사 전환의 키워드. 생태환경과 역사, 11.
- 오향녕 (2024-1). 「“갈라 묵고 살아야제”: 이 세상이 지탱되는 이유」, 인권연대 발자국통신, 2024년 2월 7일.
- 오향녕 (2024-2). 역사학 1교시, 사실과 해석. 서울: 푸른역사.
- 오향녕 (2024-3). 기록학, 역사학의 또다른 영역. 서울: 푸른역사.
- 오향녕(2024-4). 역사의 오류를 읽는 방법. 파주: 김영사.
- 마크스 래디커 (2024). <『육식, 노예제, 성별위계를 거부한 생태적 저항의 화신, 벤저민 레이』, 『죽음의 왕, 대서양의 해적들』 출간 기념 마크스 래디커, 데이비드 레스터 화상강연>, 서울: 갈무리. 2024년 6월 2일.
- 피터 라인보우 (2021), “기후 재난의 한복판에 있는 공통장(The Commons in the Midst of Climate Disaster)” <https://youtu.be/n2cFbShwVI>. 2021년 11월 6일(토) 강연.

남원 혼불 문학관

전주 시민, 혼불 단독방, 2021~2022년

전주 시민, '이제는 같이 살자' 단독방, 2023~2024년

커먼즈 번역 네트워크(<http://commonstrans.net/>)

커먼즈 홈페이지(OnTheCommons.org)

『전라도닷컴』(<http://jeonlado.com/>)

「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2030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3호]

한겨레신문, 한겨레21, 문화일보, 서울신문